

2026 투쟁속보 13호

주차공간 관련 입장/요구

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
인천공항지역지부

- 발행일 : 2026년 6월 12일 (금)
- 발행인 : 정안석 지부장
- 대표전화 : 032-743-0053



✓ 국토교통부 감사결과(5.17.)

인천공항 직원 주차권 무분별 남발 등 방만운영
주차장 혼잡 가중, 공공서비스 질 저하

- 특히, 여객터미널 건물에 위치하여 공항 이용객이 가장 선호하고 일정이 다급한 여객들의 이용이 불가피한 단기주차장의 경우, 터미널의 상주 근무자 수는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,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우대해 공사 비상주근무자까지 포함하여 무료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였다.

* (상주근무자) 공사 374명, 자회사 7,391명, (단기주차장 정기권) 공사 1,289건, 자회사 136건

✓ 인천공항공사 정기권 관련 개선 방안 -> 3개 자회사 전달예정

- ➔ 6월 중으로 정기권 운영방식 등 조정하여 3개 자회사에 전달한다는 계획
- ➔ '개선'을 명분으로 '노동조건 저하' 발생하지 않도록,
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자회사 경영진에 요구 전달!

✓ 인천공항지역지부 입장 및 요구안

- ➔ '모두를 위한' 인천공항!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항운영 개선 필요.
- ➔ 불이익 금지! 자회사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여서는 안됩니다.
- ➔ '노사협의로'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- ➔ 직원 주차공간(주차타워, 청사주차장)을 제한없이 전면사용하도록 할 것!

우리 지부는 공항공사의 '정기권 개선 방안'이 확정되어 자회사에 전달되는 즉시, 재차 면담을 진행하여 직원 주차공간 관련 요구안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입니다.
또한 원청교섭 및 3개 자회사 공동교섭으로 "모·자회사 노동자 차별없이 원활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비 지급/통근버스 운영"을 요구하겠습니다!

2026년 투쟁 승리!